

[특집]

## 빌렘 플루서의 소통학으로 본 교회와 평신도\*

■  
김 효 은

[백석예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

1. 들어가면서
2. 소통의 구조
  - 2.1. 소통의 쌍방향 구조: 대화
    - 2.1.1. 원형 대화
    - 2.1.2. 망형 대화
  - 2.2. 소통의 일방향 구조: 담론
    - 2.2.1. 피라미드형 담론
    - 2.2.2. 나무형 담론
    - 2.2.3. 원형극장형 담론
    - 2.2.4. 극장형 담론
3. 소통 인자(Kommunikeme)와 기구-작동자
  - 3.1. 세 가지 소통 인자
    - 3.1.1. 명령법
    - 3.1.2. 원망법
    - 3.1.3. 직설법
  - 3.2. 기구-작동자
4. 나가면서

### 1. 들어가면서

디지털 콘텐츠로 소통하는 이 시대는 끝없이 뻗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만나지 않는 ‘탈중양화’의 소통 구조를 대변한다. 전통적인 ‘중양화’ 소통 구조를 대변하는 교회는 앞으로 평신도와 어떠한 관계 맺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기상은 오직 개념으로만 시대의 정신과 분위기, 아픔과 형상을 잡던 시대는 갔다고 밝히며, 매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빌렘 플루서의 소통학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Kommunikologie)에서는 기술적 형상, 콘텐츠를 문자 이후에 등장하는 인류의 소통 도구로 조명하며, 소통의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소통학(Kommunikologie)에 대한 주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로 플루서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이론이 제시하는 문자-텍스트가 일구어낸 주체 중심세계에서 기술적 형상이 만들 매체 중심세계로 이동한다는 패러다임을 버텨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시대는 도래하였고, 플루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새로운 존재 형식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율적인 전체주의의 지옥과 같은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소통학은 디지털 코드가 문자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통 도구들이 코드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활성화하는 소통 능력들이 있으며, 디지털 코드는 그 맥락에서 탄생하고 전개되었고, 이것이 일으키는 인간 소통 방식의 오류를 투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루서는 소통의 이름으로 모든 철학부, 문학 및 사회학부, 예술대학 등을 통합할 수 있으며, ‘철학의 죽음’과 ‘정신과학과 예술의 위기’는 소통학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2)</sup> 심혜련은 커뮤니컬로기가 ‘소통학’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체계 안에서 매체와 사유방식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체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융·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sup>3)</sup>고 보았다.

플루서는 기술적 형상이 기술, 산술적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졌

---

1) 이기상, 「지구촌 시대의 존재사건과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현대유럽철학연구』, 24(2010.12): 1~46, 25쪽.  
 2) 빌렘 플루서, 『코뮤니컬로기』,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257쪽.  
 3) 심혜련,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살림, 2006, 93쪽.

고, 해독된다고 보았다.<sup>4)</sup> 기술적 형상은 숫자가 기반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진 디지털 콘텐츠이다. 이기상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현실은 매개된 것<sup>5)</sup>이며, 언어나 문자 역시 우리의 삶을 매개해 왔다는 관점에서 플루서의 ‘말하기와 알파벳을 통한 글쓰기를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 상황’<sup>6)</sup>임을 공감했다.

이는 진리를 증계하던 언어와 문자의 지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도구로만 여기던 기술적 형상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류의 역사는 소통의 역사이며, 소통 도구는 소통 코드로 볼 수 있고, 소통을 일으키는 사유 방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맺음의 순환은 다음에 나타날 소통 도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플루서는 소통의 작동 과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sup>

소통이 작동하는 과정 그 자체를 본다면 크게 소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대화와 담론이다. 대화는 쌍방향 구조이며, 소통 거리의 ‘생산’ 역할을 담당한다. 담론은 일방향 구조이며, 소통 거리의 ‘저장’ 역할을 한다. 플루서는 이 대화와 담론이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다. 또한, 생물학적 구성인자를 진(gen)이라고 하면, 문화적 차원의 구성인자를 밈(meme)이라고 하며, 쿨투레메와 비교되는 코무니케메, 소통 인자를 고찰하였고, 기구와 관계를 맺는 기구-작동자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교회와 평신도에 대해 고찰할 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세 가지는 앞에

4) 빌렘 플루서, 앞의 책, 191쪽.

5)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현대유럽철학연구』, 30, 2012, 6쪽.

6) Vilem Flusser, “Alphanumerische Gesellschaft. Die Zukunft des Buchstabenlebens”, in: Die Revolution der Bilder. Der Flusser-Reader zur Kommunikation, Medienund Design, Mannheim: Bollmann, 1995, p.52.

7) 빌렘 플루서, 앞의 책, 180쪽.

서 밝힌 소통학의 고찰 요소에서 출발하였다. 소통의 구조, 소통 인자, 기구-작동자이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교회와 평신도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 2. 소통의 구조

플루서는 정보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코드의 흐름과 관련한 것을 소통 연구의 기준으로 보았다.<sup>8)</sup> 인간이 정보를 생산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정보를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플루서는 정보의 생산과 분배의 측면에서 답을 제시했다.<sup>9)</sup>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대화이고, 대화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엔트로피 법칙에 잘 저항할 수 있는 형식은 담론이다.

소통의 구조는 대화와 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론은 대화를 위한 정보가 저장되는 구조이다. 생산과 저장은 서로를 전제하는 구조이다. ‘서로’를 전제한다는 것은 ‘경계’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소통의 기본 테제로 ‘경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계’를 전제로 한 소통의 구조는 ‘방향’을 통해 활성화된다. ‘방향’은 소통의 흐름, 작동으로 볼 수 있다.

### 2.1. 소통의 쌍방향 구조 : 대화

대화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합성하는 방법이다.<sup>10)</sup> 대화는 정보가 교환되면서 의미, 곧 정보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플루서는 대화가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원형 대화와 망형 대화가 그것이다. 원형과 망

8) 김성재, 『플루서, 미디어 현상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48쪽.

9) 김성재, 앞의 책, 22쪽.

10) 김성재, 앞의 책, 22쪽.

형의 차이는 구조에 있다. 원형대화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전제로 한다면, 망형대화에 참여하는 존재들의 시간과 공간은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존재들만 있다면, 소통이 가능하다.

### 2.1.1. 원형 대화

원형 대화는 원탁위의 대화로 볼 수 있다. 이 구조는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한 기억들 속에 저장된 모든 정보의 ‘공통분모’위에 새로운 정보를 올리는 것이다.<sup>11)</sup>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구조 뒤에 복잡성이 있는데, 그것은 대화의 기억들이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대화의 유래는 의견의 일치에서 오는 것이 아닌 갈등에서 유래한다. 이는 소통의 전제가 ‘경계’임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원형 대화는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참가자 수에 제한이 있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형 대화의 성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플루서는 원형 대화가 성공한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았다.

### 2.1.2 망형 대화

망형 대화는 분산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잡담, 수다, 욕설 그리고 소문의 확산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편, 전화 체계, 컴퓨터 구조의 발전된 형식이다. SNS와 댓글 등은 망형 대화 구조의 현재화된 형식이다.

이 대화는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탄생한다는 것이 더 적합하다. 원형 대화와 달리 망형 대화는 ‘열린 회로’

---

11) 김성재, 앞의 책, 22쪽.

이며, 참여자는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다. 또한, 언제나 소통의 성공률이 높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종국에 모이는 저수지와 같아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망형 대화는 잡음에 대한 개방성 때문에 엔트로피를 완화하면서 광범위하게 그것에 종속된다. 이러한 모순은 인간 조건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세계 속에 존재함과 동시에 그 세계에 저항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망형 대화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토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망형 대화는 원형극장형 담론이 기술적으로 대중매체로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된다.<sup>12)</sup> 원형 대화가 기구 없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면, 망형 대화는 기구와 관계가 없다. 망형 대화의 사례는 소문으로 볼 수 있다. 소문은 무한 확장 가능하며, 공간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소문은 더 커진다. 쉽게 대중매체를 이용한 소식 및 연예인에 관련한 루머가 이 망형 대화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때 루머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렵다. 대상을 직접 만날 수 없는 특징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무한 확장되는 구조이므로 전달력이 빠르다.

## 2.2. 소통의 일방향 구조 : 담론

담론은 정보를 충실히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론의 송신자는 잡음의 침투와 정보의 변형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담론의 수신자는 수신자를 미래의 송신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 담론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담론이 정보를 정확하게 저장하는데 충실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모순이 된다. 결국 담론의 문제에서 이 딜레마를 조화시키는 문제가 목표가 된다.

---

12) 김성재, 같은 책, 26쪽.

이 지점은 가톨릭교회의 사제 양성 문제와 닮아 있다. 사제 양성은 전통적인 교회의 지침과 미덕들을 오류 없이 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방향 소통 구조라 할 수 있다. 플루서는 담론을 극장형 담론, 피라미드형 담론, 나무형 담론, 원형극장형 담론으로 나누었다.

### 2.2.1. 피라미드형 담론

피라미드형 담론 구조는 송신자가 분배할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송신자는 원래의 정보를 기억한 채 작가가 된다. 작가인 송신자와 정보를 받는 릴레이를 연결하는 채널은 정보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코드의 운반체이다. 릴레이는 중계기로 볼 수 있으며, 송신자이며, 수신자이다. 릴레이는 송신자가 전달하는 정보에서 잡음을 제거한다. 또한, 잡음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송신자에게 다시 정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재코드화하는 기억이다. 릴레이는 ‘권위자들’이다.<sup>13)</sup>

이 릴레이들과 수신자들을 연결하고, 수신자에게 연결하는 채널은 재송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데 사용되는 코드의 운반체이다. 대부분의 피라미드형 담론에서 채널은 종이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자들은 정보가 저장되는 기억들이며, 대부분의 피라미드형 담론은 수많은 릴레이 과정과 위계질서가 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메시지의 충실한 보존’이며, 이를 위해 잡음을 제거하는 재코드화가 이루어진다. 피라미드형 담론 속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는 폐쇄되어 있다.

릴레이인 권위자들은 근본적으로 대화와 거리가 멀며, 외적·내적 잡음은 차단하는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정보의 흐름을 폐쇄된 체계로 만든다.<sup>14)</sup> 피라미드형 담론의 전형적인 예로 군대, 교회, 파시

13)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5쪽.

14)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6쪽.

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적 정당을 들 수 있다. 이 구조의 요소들은 송신자, 송신자와 릴레이를 연결하는 채널, 릴레이, 이 릴레이와 수신자들을 연결하는 채널과 수신자이다. 이때 송신자, 릴레이, 수신자는 경계가 있으며, 채널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플루서는 채널이 재코드화를 한다고 하였으며, 재코드화의 작업 역시 방향으로 작동한다.

위계는 피라미드형 담론의 사례이다. 이는 수신자와 송신자의 단위 구조가 많을수록 저장에 효과적이다. 군대나 가톨릭교회의 경우 위계가 분명하다. 수신자끼리 대화가 가능하다면, 잡음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는 위로부터의 명확한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의 경직성은 아주 높다. 이 구조의 단위 구조는 어느 모듈만 떼어 놓아도 같다는 것이 장점이며, 단점은 대화의 차단으로 인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오는 진화가 어렵다.

### 2.2.2. 나무형 담론

나무형 담론에서는 대화가 릴레이를 대체하고, 두 가지 근본적인 담론 구조에 변화가 일어난다.<sup>15)</sup> 채널의 교차와 이 담론의 최종 수신자들의 배제이다. 여기에서는 급진적인 담론 구조가 문제가 된다. 진보적인 산업 조직이나 예술계가 이 구조를 모방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sup>16)</sup> 이 담론의 구성 요소는 정보의 송신자가 있지만, 오직 담론의 추론을 통해서만 보인다.

정보가 대화에서 대화로 중계되면 복잡한 코드를 운반하는 채널들이 이 정보들을 분석하고, 일부를 재코드화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창조되기 위해 다른 정보의 일부를 흡수한다. 이 지속하는 대화에 순환 고리가 생기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억들로 이루어진 대화들이다. 나무형 담론은 피라미드형 담론과 비슷하지만,

15)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7쪽.

16)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7쪽.

교차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담론 구조의 특징은 원천적으로 정보를 분해하고, 끊임없이 창조한다.

이때 정보는 발전하지만, 흐름을 보장하고, 결국 정보는 흩어진 다. 모든 파편은 코드 내에서 해독되고, 정보가 분배될 때 파편들은 교차하면서 흩어진다. 정보를 발전시키는데 나무형 담론은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정보의 충실함’은 보장하지 못한다.<sup>17)</sup> 나무형 담론의 사례는 과학의 발전, 학술논문으로도 볼 수 있다. 상징 기호인 문자와 숫자의 기록은 학교를 등장시켰고, 분과학문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 2.2.3. 원형극장형 담론

극장형 담론에서 벽을 없앤 것으로, 이 담론 구조는 경계가 없다. 플루서는 ‘우주적 개방성’으로 표현했다. 이 구조는 단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배될 정보가 계획되어 있는 기억으로서 빈 공간 속에서 떠다니는 송신자와 이 구조에 맞게 특별히 정보 코드를 운반하는 송출 채널들이다.

채널들은 예를 들어 신문지, 전파, 필름통 등을 들 수 있다.<sup>18)</sup> 경계가 없는 공간 속에서 먼지 형태로 떠다니지만, 제3의 요소가 꼭 포함되어 있는데, 수신자이다. 수신자는 한 채널을 알게 되어 이 채널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며, 정보를 수신하는 기억이다. 수신자가 채널을 알게 되는 ‘우연’은 이 담론의 의도이다. 무구조성이다.

이 구조의 특징은 수신자들이 담론의 바깥에 거의 존재하며, 채널들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지 않는다. 서로를 보지 못하고 채널을 볼 뿐이다.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송신자로서의 텔레비전 기지국과 대중의 수신자로 볼 수 있다. 수신자들은 대중으

17)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8쪽.

18) 빌렘 플루서, 앞의 책, 30쪽.

로 볼 수 있으며, 정보의 저장식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오직 수신할 뿐이다. 반대 방향으로 재송신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채널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수신자들은 무중력 공간 속에서 떠다니며 의도적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없다. 오직 채널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담론의 수신자들은 방향 대신 프로그램을 가진다.

이 담론은 보편적인 매우 적고 간단하며 획일화된 코드를 이용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이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 이 담론은 정보 분배의 두 가지 의도에 가장 좋은 구조인데, 하나는 수신자들을 저장식품으로 전환하여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송신자를 영원히 작동시킴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원형극장형 담론은 현대사회에서 많이 보인다. 산업화를 통한 대량 생산되는 브랜드가 사례가 될 수 있다. 대중매체 마케팅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형상이 이 담론으로 드러난다. 이 담론은 사람들의 성찰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 2.2.4. 극장형 담론

이 구조의 요소들은 송신자 등 뒤에 있는 오목한 벽이 있어야 하고, 송신자와 반원으로 분포된 수신자들을 연결하는 채널이 있다. 오목한 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동시에 확성기 기능을 가진다.<sup>20)</sup> 송신자는 분배될 정보가 저장된 기억이며, 채널은 코드의 물질적 운반체로, 플루서는 극장에서 소리를 나르는 공기로 보았다. 수신자는 나중에 계속 전달될 수 있기 위해 정보가 저장된 기억들이다.

이 구조의 특징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사

19) 빌렘 플루서, 앞의 책, 30쪽.

20)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4쪽.

실이다. 정보에 대한 충실함은 잡음을 차단하는 벽에 의해 보장된다. 수신자는 스스로 벽을 향해 갈 수 있고, 몸을 돌릴 수 있으며, 송신할 수 있으므로 발전과 혁명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이 가능함으로 충실함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 구조는 대화가 개방되어 있다.<sup>21)</sup> 플루서는 극장형 담론은 분배된 정보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그들을 미래의 송신자로 만드는데 탁월한 구조로 보았다.

하지만 이 담론을 통해 충실하게 분배되려면 다른 담론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극장형 담론은 극장으로 볼 수 있다. 벽은 울림을 제공하고, 송신자의 정보는 더 강조된다. 학교 교실, 강연장, 콘서트홀 등이 극장형 담론에 해당한다. 극장형 담론은 피라미드형 담론과 비슷한데, 피라미드형 담론이 모듈화된 위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극장형 담론은 송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카리스마를 전달한다. 예술작품을 사례가 될 수 있다. 극장형 담론의 송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신자와 대비되는 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통의 구조는 크게 정보의 생산과 저장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에는 두 가지 형태, 저장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생산은 쌍방향이며, 저장은 한 방향이다. 플루서는 소통 구조들을 고찰하면서, 기술적 형상의 작동 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망형 대화의 한계 없음과 원형극장형 구조의 유연과 무방향성은 생명의 구조만큼 콘텐츠 소통의 확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

21)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4쪽.

### 3. 소통 인자(Kommunikeme)와 기구-작동자

플루서는 인간이 계를 이어 소통을 하는 밈(meme)을 코무니케메(Kommunikeme)와 쿨투레메(Kultureme)로 나누었다. 이는 소통의 정보들이 기억되는 방식과 기억하는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처럼 결부된 구조들을 해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쿨투레메(Kultureme)가 중계되는 문화적 정보라면, 코무니케메(Kommunikeme)는 내용을 프로그램화하는 방법·형식과 관계가 있다. 플루서는 쿨투레메를 다루는 것은 사회학적 질문 제기로 보았고, 소통인자(코무니케메)를 다루는 것이 소통학적 질문 제기로 보았다.

인간은 한 세대의 기억 속 정보들을 다음 세대의 기억 속으로 중계한다. 플루서는 이때 그 중계를 허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코무니콜로기의 핵심 질문이 될 것<sup>22)</sup>이라고 강조하였다. 생명체들은 발생학적 정보들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중계하고 환경에서 얻은 정보들도 중계한다. 이를 ‘역사성’이라고 한다.

소통 인자는 ‘밈’(Meme)을 소통의 개념에 접합한 것인데, 이때 전달하는 내용을 문화의 인자인 쿨투레메(Kultureme)로 볼 수 있고, 소통의 구조에 대한 것은 코무니케메(Kommunikeme)로 볼 수 있다. 소통학에서는 메시지의 의미론적 차원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중요한 문제제기로 보았으며, 메시지들을 소통 인자로 분해하면 대부분의 소통들이 명령법, 태도 모델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플루서는 제안된 유형들이 얼마나 도식적인지 지적하며, 소통 인자를 더 정확히 고찰하면 우리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놓칠 수

---

22) 빌렘 플루서, 앞의 책, 327쪽.

있었던 우리의 학교 제도와 실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1. 세 가지 소통 인자

플루서는 소통 인자를 명령법, 원방법, 직설법으로 분류하였다.<sup>23)</sup> 아래의 표는 장성준이 커뮤니케메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sup>24)</sup>

유형	목적	의미	범주
명령법	태도	A는 B여야 한다	실재적
원방법	경험	A는 B일 수 있다	예술
직설법	인식	A는 B이다	과학

[표 1] 커뮤니케메의 유형

분류 근거를 유추해보면, 내용을 전달하는 송신의 측면에서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방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화는 쌍방향 구조이며, 담론은 외부 정보의 침투를 제한하기 위한 일방향 구조이다. 담론에 비해 대화는 송신의 측면이 두드러진다. 대화와 담론의 구조는 방향의 형태·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대화는 방향이 열려 있지만, 담론은 방향을 사유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송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커뮤니케메는 송신의 구조를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가 소통할 때 미래 세대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성준이 해석한 커뮤니케메를 살펴보면, 명령법은 태도, 원방법은 경험, 직설법은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원방법은 송신자가 수신자를 인식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도'이다. 교회의 관계 맺음을 인간과 인간, 인간과 교회, 인간과 절대자라는 것으로 분류했을 때, 필자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하

23) 빌렘 플루서, 앞의 책, 330쪽.

24) 장성준, 「담론연구와 커뮤니콜로지 : 빌렘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2008, 13쪽.

였다.

유형	목적	의미	범주
명령법	사제 양성	인간과 교회와의 관계	태도
원망법	영성 수련	인간과 절대자와의 관계	기도
직설법	교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식

[표 2] 커뮤니케메로 본 교회의 관계 맺음

교회에서 명령법은 사제 양성에서 볼 수 있다. 사제를 양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송신자들은 이 정보를 받는 수신자들이 미래의 자신들과 같은 송신자들이 될 것을 알고, 미래에도 명령법이라는 같은 소통 인자를 쓰도록 강조(명령적 태도)한다. 이는 인간과 교회의 관계이다. 명령법이라는 소통 인자가 모두 그렇듯 엄격하고 그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쓰인다.

송신자가 수신자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원망법은 신자와 절대자 사이의 관계 맺음이라 볼 수 있으며, 기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콘텐츠로 소통하는 현대에 원망법이 인간의 중요한 소통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홀로그램 또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세계의 고도화가 진행될수록 프론트엔드 뒤에 숨겨진 코드들을 헤아리고, 다루는 것은 원망법에 대한 익숙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직설법은 교의이다. 이 소통 인자는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 맺음 단위이다. 이들은 교의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 서로를 인식하는 탈권력화된 소통 인자이다.

### 3.1.1. 명령법

코뮤니케이션의 명령법은 태도에 관련된 것으로, 소통 과정에서 잡음이 생산적이지 않을 때 주로 쓰인다. 모든 코드는 그 능력에 있어서 명령법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메시지들을 해독하는 방법간의 관계이다. 플루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대중매체에서 메시지들의 명령법적 특징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며, 발생학적 입장에서 모든 메시지는 태도 모델, 명령법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나중에 체험 및 인식 모델이 된다. 플루서는 내용보다 태도를 본질로 보았다. 메시지를 코뮤니콜로기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를 프로그램화하는 개별적인 명령법들을 ‘의미’에 따라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제되는 것은 모든 명령법은 송신자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대중매체가 명령법-소통태도모델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 대중매체가 산술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플루서가 이야기한 대중매체의 개인화는 인터넷과 모바일 문화로 볼 수 있다. 기술적 형상, 콘텐츠가 이루어지는 과정,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그 생성 과정에서 코멘드, 명령법적 소통 태도가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플루서는 직설법이 과학적 담론 구조의 압력 아래 있으므로 학교체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명령법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통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둘의 구별은 직설법이 높은 수준의 교육에 이르면 명령법과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sup>25)</sup>

### 3.1.2. 원망법

플루서는 원망법이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미학적·예

25) 빌렘 플루서, 앞의 책, 331쪽.

술적·종교적 가치들의 영역이다.<sup>26)</sup> 종교의 영역은 수신자를 헤아릴 수 없는 관계 맺음이다. 신(神)은 인간의 경계인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수신자이자, 송신자이다. 신과의 관계 맺음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진리를 직설법 없이 알아차리는 직관은 원방법의 대표적인 작동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과 관계를 맺을 때 원방법이 쓰일 것이다. 로봇의 백엔드(back-end), 개발자의 영역은 로봇과 관계를 맺는 대중이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로봇과 관계를 맺는 송신자인 인간은 수신자를 로봇의 개발자와 알고리즘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에서 직관과 같은 인간의 관계 맺음 능력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는 원방법이 물리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0과 1사이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4진법 소자와 양자역학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이는 다시 고도화된 과학 기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기술적 형상이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원방법의 소통 인자를 해부하는 작업들은 더욱 요구된다. 터치에 의한 체험의 자유 가능성을 극대화한 스마트 기술들은 원방법처럼 보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명령법과 직설법의 응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 3.1.3. 직설법

직설법은 인식과 관련이 있다. 종교·인식론적 가치들의 영역이다. 플루서는 인식 프로그램들 커뮤니케메가 작동하는 학교 수준은 대학으로 보았다. 공과대학의 분과학문들과 철학 세미나 등이 이러한 교육 차원이다. 플루서는 프로그램화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이미 초등학교 교육에서 정치·도덕의 교육이 끝났다는 것을 알

26) 빌렘 플루서, 앞의 책, 330쪽.

려준다. 실제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강력한 도덕의 의미는 그 이후의 학교 단계에서 같은 코뮤니케메로 다시 다루어지지 않는다. 플루서는 우리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 자체를 사유할 때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분류 유형을 더 정확히 고찰하면, 학교 제도 및 우리의 실제 상황 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플루서는 학교 체계가 올라갈수록 전수된 코뮤니케메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과학적 담론 구조 안에서 직설법은 명령법보다 더 짧게 통용된다. 예를 들어, 콧구멍을 후비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는 동안 태도 모델로 통용될 수 있으나, 그해의 원자 모델은 몇 달 안 가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비트와 모듈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리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직설법으로 이루어진 기술적 형상이 나타나는 과정 안에서 직설법의 코뮤니케메는 순간적으로 나타나거나 삭제된다.

직설법의 사례는 과학이나 철학 등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자가 만들어지는 법, 코드가 만들어지는 방법도 이에 속한다. 코뮤니케메의 명령법과 직설법, 원방법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소통의 방향의 분명한 여부이다. 명령법과 직설법은 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며, 원방법은 한 방향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령법과 직설법이 학교 체계가 높아갈수록 두 코뮤니케메의 차이가 덧없어진다고 한 것은 한 방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3.2. 기구-작동자

플루서는 기구-작동자를 소통의 도구와 같은 층위로 살피고 있으며,<sup>27)</sup> 소통의 구조와 인자, 기구-작동자가 조합이 된 사례를 풀어헤치고 있다.

27) 빌렘 플루서, 앞의 책, 161쪽.

기구-작동자는 기술적 형상과 관계를 맺는 인간이다. 플루서는 기구-작동자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나누었다. 이때 분류 기준의 의미는 기술적 형상과 관계 맺는 방법이며, 기구를 ‘만드느냐’, ‘사용하느냐’이다. 이 ‘동사’를 소통의 구조로 본다면, 기구와 대화의 구조 혹은 담론의 구조로 관계 맺는 것이다. 기구와 담론의 구조로 관계 맺는 것은 개발자의 영역이며, 대화의 구조로 관계 맺는 것은 대중의 영역이다.

기구-작동자는 평신도와 잠재적 평신도로 나눌 수 있다. 평신도는 잠재적 사제의 출발로 볼 수 있으며, 기구-작동자의 관계 맺음을 소통의 구조와 소통 인자로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교회가 평신도와 어떻게 관계 맺을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 4. 나가면서

소통학은 인간 인식의 경계를 재고하게 하면서, 경계를 재구성하는 지평을 열어준다. 기술적 형상은 문자 이후에 등장하는 인류의 새로운 소통 도구이다. 플루서는 소통의 근본 이유, 구조와 형식을 드러내면서 소통 그 자체에 대해 사유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넘어 인간과 기계, 인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소통 방식까지 헤아려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술적 형상을 소통 도구 중의 하나로 좌표화하면서, 소통의 작동 그 자체를 연구의 목표이자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통의 작동 그 자체는 소통의 구조와 인자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소통을 저장(담론, 일방향)하고, 생산(대화, 쌍방향)하는 측면에서 소통의 구조를 통해 사례들을 고찰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물학적 기본 요인을 진(gen)이라고 하고, 문화적 기본 요인을 밈(meme)이라고 보면서, 문화인자(cultureme)와 소통인자(communikeme)

로 나누어, 소통인자를 통해 매체 속 메시지들을 분해하고 있다.

다음은 커뮤니컬로지의 분석 요인들을 해석한 것이다. 소통의 구조, 소통 인자의 공통점은 모두 경계가 있고,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대화는 쌍방향성 구조를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담론은 한 방향 구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저장한다. 원형 대화와 망형 대화의 차이는 경계로 볼 수 있으며, 담론 구조도 경계와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통 인자인 커뮤니케메는 소통이 전달되는 방식이며, 명령법과 직설법은 한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된다. 원망법은 탈-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통에서는 구조와 형식을 결정짓는 근본 요인이 경계와 방향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평신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공부하면서, 길어 올린 소통학을 통해 교회와 평신도의 관계 맺음,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교회는 피라미드형 담론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정보 보존 형식은 사제 양성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잡음이 없는 일방향 소통 형식은 정보의 보존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는 현대의 교육 체계를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다. 교육의 발전은 분과학문과 과학기술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콘텐츠가 인류의 소통 도구가 된 현대에 소통 구조는 전통적인 문자 중심 소통 구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문자와 대비되는 숫자는 기계와 인간이 소통하는 출발이 되었다. 전기적 신호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 되는 이진법(digit)은 기계어, 어셈블리어의 근본 단위가 되었으며, 인간의 언어에 가까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언어로 분류되고 있다. 문자와 달리 콘텐츠는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디지털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체험하는 프론트 엔드(front end)와 프로그램 개

발자가 다루는 백 엔드(back end)로 나눌 수 있다는 지점이며, 콘텐츠를 향유하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프론트엔드만 경험할 수 있다.

기구-작동자로서 평신도들은 탈중양화된 소통 구조, 원형극장형 담론 구조의 망형 대화 구조에 놓여 있다. 이 지점은 교회의 전통적인 미덕과 모순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교회는 오류 없는 정보의 순수한 저장과 그것을 이용한 사제 양성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사제는 평신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회의 어려움과 평신도가 신학을 배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성재, 『플루서, 미디어 현상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빌렘 플루서, 『코뮤니콜로지』,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심혜련,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의 미학』, 살림, 2006.
- 이기상, 「지구촌 시대의 존재사건과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현대유럽 철학연구』, 24, 2010.
- 이기상, 「현상과 미디어」, 『현대유럽철학연구』, 30, 2012.
- 장성준, 「담론연구와 코뮤니콜로지: 빌렘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2008.
- Vilem Flusser, “Alphanumerische Gesellschaft. Die Zukunft des Buchstabenlebens”,  
in: *Die Revolution der Bilder: Der Flusser-Reader zu Kommunikation, Medien und Design*, Mannheim: Bollmann, 1995.

## 국문초록

필자는 평신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공부하면서 소통학을 접하였다. 소통학은 소통의 작동 그 자체를 학문의 목표와 연구 방법으로 삼고 있다. 소통의 구조와 소통 인자 개념을 통해 소통은 경계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체 혹은 메시지들은 이들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통 그 자체를 사유하는 것은 문자 역시 소통 도구라는 것을 드러내고, 문자의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작동하던 시기에 분과학문이 등장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숫자는 통역이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소통 도구인 문자와 대비되며, 숫자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기술적 형상, 디지털 콘텐츠는 인류의 새로운 소통 도구로 등장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다루는 기구-작동자는 평신도와 잠재적 평신도로 볼 수 있으며, 소통의 구조와 소통 인자의 조합들을 교회의 관계 맺음에 대입해 보았다. 교회는 명령법을 통해 사제 양성을 하고, 원방법을 통해 믿는 이와 신을 연결시켜준다. 개발자의 영역을 감춘 콘텐츠로 소통하는 미래에 원방법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교회의 역할도 더욱 더 주목받을 것이다. 교회는 오류 없는 정보의 보존을 위해, 일방향 소통 구조와 엄격한 태도의 소통 인자로 잠재적 사제와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 사제가 아닌 평신도들이 잠재적 사제들과 사제양성 커리큘럼을 공유하면서, 같은 소통 구조와 소통 인자를 경험해야 하는 점은 근본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디지털 콘텐츠 시대의 소통 구조를 살펴, 평신도와 의 관계 맺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 주제어: 소통학, 평신도, 정보 보존, 탈중앙화, 콘텐츠